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인천, 광주, 나오시마를 통한 문화적 단상



Interview

인천대 이지은 문화대학원장과의 만남



IDI 소식



인천교육정책포럼 창립
식 및 간담회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지난 2월 20일, 인
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Zoom 人



편성 준비중입니다
편성 준비중입니다...

Zoom INcheon



개항의 역사와 삶의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
신포시장
인천은 우리나라 개방
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항구도시이
다. 처음...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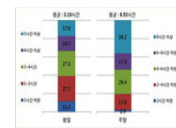
세계 환경수도 기타큐
슈시 탄생 50주년의
의미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는 총 1,719개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

IDI 연구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
문화지표조사는 문화
예술통계의 한 분야로
문화 환경과 문화 활
동 현황, ...

인천지표



〈2012 인천시민문화
수요조사〉로 살펴본
인천시민들의 문화 향
유 실태
〈2012 인천시민문화
수요조사〉는 인천시
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

인천, 광주, 나오시마를 통한 문화적 단상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광주, 나오시마를 통한 문화적 단상

이종구 · 중앙대 교수, 화가

인천에는 시립미술관이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건립중)은 물론 인구가 적은 전북과 제주도까지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을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광역시에는 20년전, 1992년에 시립미술관을 개관했다. 이어 1995년에는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최근에는 서울의 사간동에 분관적인 전시장을 개관했고, 세계 미술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국 베이징에 창작스튜디오까지 열었다. 지역작가와 출향작가들을 중앙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시키려는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인천의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환경과 예술공간 인프라 현실은 어떠한가? 148만명 인구의 광주시에 비해 두배가 되는 284만 명의 인구와 예산규모 등에서 크게 앞서지만 문화예술의 인프라 수준은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도시로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도시로서 시립미술관조차 없다는 사실은 인천시민으로서, 또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여기에 덧붙여 인천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법 적극적인 건립의지로 추진돼 오던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조차 최근 다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카가와현의 작은섬 나오시마는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미술관과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 예술의 섬으로 유명하다. 2010년에는 재일작가 이우환미술관도 건립됐다. 일본 베네세그룹은 과거 구리제련소가 있던 작고도 낙후한 섬 나오시마에 20여년동안 약 460억엔을 투자하여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과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 예술의 섬으로 변화시켰다. 그 덕에 연간 35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고 주민들의 평균소득도 가가와현 내 35개 자치단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오시마의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세계적인 여행잡지 트래블러는 세계 7대 관광지로 빠리, 두바이 등과 함께 나오시마를 선정했을 정도이다. 나오시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모든 미술관과 미술작품들을 화려하게 겹으로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섬의 자연경관에 스며들게 하여 자연과 건축과 예술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성한 것이다.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 상상력을 앞세운 건축프로젝트의 결과이다. 그래서 나오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섬에 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과 미술작품들을 만나고 감상하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

지난해 여름 내가 나오시마를 여행하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범한 작은 섬을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변모시킨 일본의 기업과 이를 지원한 지자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이어서 본능적으로 우리 인천 앞바다의 섬들이 떠올랐고 비교되었다. 특히 근래에 개발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굴업도와 무의도를 생각했다. 알다시피 굴업도와 무의도는 국내제벌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 중심의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곳이다. 위락시설로 관광지를 조성하면 당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휴식문화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적 발상과 생태적 상상력을 앞세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에 기반한 관광산업은 가장 각광받는 모델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훌륭한 미술관을 건립하거나 여러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당길에 접어든 낡은 도시나 폐쇄된 탄광촌 등을 살려낸 예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철광산업으로 퇴락한 스페인의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신축하여 세계적인 문화도시, 관광도시가 되었고, 화력발전소를 재생한 영국 런던의 데이트 모던. 탄광촌을 대규모 창작공간이 되

문화예술 인프라로 부흥시킨 독일 에센의 출페어라인, 일본의 가나자와, 요코하마, 뉴욕 맨하탄의 폐쇄된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 등은 지자체나 중앙정부, 혹은 민간기업의 탁월한 문화적 상상력과 마인드의 산물이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관광자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면에서 인천아트플랫폼도 구도심 재생의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라 할만하다. 퇴락한 구도심의 낙후한 창고나 건물들을 창작공간, 예술생산기지로 변화시킨 발상은 성공한 여러 창조도시들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공사례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발상과 추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거시적으로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지향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요구와 전문영역의 연구가 더 적극적이다. 알다시피 인천은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건으로 매우 고무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퇴락했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공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도심이 있고, 서해5도를 비롯한 많은 섬들이 새로운 개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적 유산과 자연유산의 보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제도시, 명품도시, 그리고 경제수도라는 개발지상주의적 구호에 갇혀 개발과 확장 만을 주로 추진해온 나머지 오늘날 시립미술관 하나 없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국내 대도시 중 가장 낙후한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라도 구도심이나 서해의 섬을 비롯한 자연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21세기에 맞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생각해야 할 때다. 앞서가는 문화도시 광주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 사례와 예술의 섬 나ოს이마의 성공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인천에는 시립미술관이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건립중)은 물론 인구가 적은 전북과 제주도까지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을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20년전, 1992년에 시립미술관을 개관했다. 이어 1995년에는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발전시켰다.



인천대 이지는 문화대학원장과의 만남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을 알고, 사랑하며 글로벌한 문화마인드 가진 창조적인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될 것”

아프리에 79호에서는 인천대문화대학원 이지는 원장을 만나 인천 지역사회와 호흡할 문화인력 양성 전문기관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문화대학원의 교과과정이 가진 특색, 그리고 어떤 인재상을 양성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고, 지역특성화 과제들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지 은 인천대 문화대학원장

Q. 얼마전에 인천대문화대학원 오리엔테이션도 치르셨고, 그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바쁘셨을 줄 압니다. 문화대학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즈음해서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있고,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화인력 수요

는 증가하고 있고, 문화와 삶이 밀착된 관점에서 문화를 생각하고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인구가 3백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세번째 도시인데 이에 비하여 문화 수준과 문화 인프라 부분, 특히 문화인력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천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화적인 풍요로운 삶을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학과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 대학과 인발연을 비롯 인천문화재단과 시정부,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 등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잘 알면서 글로벌한 문화마인드와 창조적인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우리 대학을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만들어 지역을 이해하고 글로벌하면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마인드를 가진 문화인력을 양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해 시민단체와 시정부의 도움으로 문화대학원을 만든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문화대학원만의 교과 과정에 특색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특색있는 커리큘럼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넓은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문화도 인간을 이해하는 토대 없이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천 지역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유럽 등 세계문화도시 사례들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인천을 문화도시로 만들 방안을 찾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상아탑에 갇혀있는 이론을 위한 이론만이 아니라 대학과 문화현장을 연결하는 실사구시적 학습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문화대학원에서 지역특성화 과제는 어떻게 실현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일 중부 지역의 산업화지구라고 볼 수 있는 보름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된 독일은 도시 고교마다 특색이 있고 자부심이 강한 교과자의 하체 인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버르크 드이

경우도 항구사 박물관, 이민사 박물관, 전쟁 박물관 등 수없는 박물관들이 있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지역밀착형 문화대학원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또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시민문화단체 등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와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대학원을 만들 때부터 끊임없는 대화를 해온만큼 우리 문화대학원의 전문 교수들과 함께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고, 정책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천발전연구원이 문화대학원의 개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담·사진 : 김 창 수(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뜨리에 79호에서는 인천대문화대학원 이지는 원장을 만나 인천 지역사회와 호흡할 문화인력 양성 전문기관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문화대학원의 교과과정이 가진 특색, 그리고 어떤 인재상을 양성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고, 지역특성화 과제들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인천교육정책포럼 창립식 및 간담회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월 2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교육정책포럼 창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초·중·고교와 대학, 평생교육기관, 교육관련 연구소 등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포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심화하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교육 자치의 성공적인 해법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또한, 오는 4월경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대학입시 연계방안'을 주제로 제 1차 인천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교육정책포럼은 연간 3,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제3차 인천재정포럼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월 6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3층 귀빈홀에서 '제3차 인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신두섭 정책연구관이 "지역발전과 재정지원정책의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현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신정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김재영 교수 등 총 17명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위기의 지방재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개선과제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 바람직한 지방재정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한국형 지방재정 건전화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확보방안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 재정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재정포럼을 계기로 논의된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지방재정 발전방향과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할 지방재정 관련 정책들을 비교·검토해 5월경 개최 예정인 4차 인천재정포럼에서 집중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해 새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 서해평화정책포럼인구평화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서해평화정책포럼(공동대표: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최원식 인하대 교수)은 지난 2월 4일, 우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해평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선원 인발연 연구위원이 각각 '정전60년과 서해평화', '서해평화를 위한 국가 및 지역의 중점과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인 이호철 인하대 교수,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세일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남북고교교류위원장이 토론을 맡아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포럼 위원 및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전 6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를 평화와 안정지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인천의 지역과제를 점검하고, 그 실천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발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학술행사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최근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13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세 기관 등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원도심의 공동체 회복,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도시행정학회의 주관 아래,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성공사례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학술연구 성과 등을 논의했다.

특별세션인 제1세션의 정책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우리 연구원 이왕기 연구위원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충북대 황희연 교수의 '주민자조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수석연구원의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윤석운 교수(인천대학교), 남문희 과장(인천시), 조상운 정책연구관(지역발전위원회), 이재병 의원(인천시의회)이 참여했다. 제2세션의 자유논문 발표 및 토론에서는 안양대학교 부설 마을 만들기 연구센터 여관현 책임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의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의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에 기초한 대안으로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모델 연구' 등 총 6편의 자유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시장을 가다(1) - 신포시장

개항의 역사와 삶의 공간이 어우러진 신포시장

인천은 우리나라 개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항구도시이다. 처음으로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으로부터 침입을 받기도 했고, 서구 열강의 군대가 제멋대로 들어와 조선을 전쟁터로 만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6.25전쟁에서도 인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천은 오래전부터 국제 문물 교류의 관문으로서 늘 내외국인이 북적거리는 활력 넘치는 장소였다. 그 중에서도 신포동은 개항 이후로 가장 먼저 도시화된 지역으로 근대 유적이 밀집한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다. 특히 이곳 신포시장은 인천 최초의 근대시장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특색 있는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과거 중국 선원들이 즐겨 먹었다는 닭강정, 뜨거운 화덕에서 부풀어 오른 공갈빵, 저절로 손이 가는 알록달록 사탕,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60년 전통의 제과점, 러시아 선원들의 낙서가 인테리어가 된 오래된 상점들이 옛날 그 시절 그 시간으로 되돌린 듯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인천 개항 근대사의 콜라주

1900년대 인천 제물포항 부근 신포동에는 신기한 외국문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 신포동에는 개항의 바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인천 공동 어시장'이 생겼다. 일본의 침략 거점이었던 개항장 일대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들었고, 한일 강제합방 이후에는 개항장 인구 3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을 일본인이 차지할 정도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인천에 개항과 함께 들어온 중국 상인들 중 일부가 산동선 연대에서 채소씨앗을 가져와 농사를 지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농사를 지어 팔았던 양파, 당근, 토마토, 우엉, 시금치 등의 채소는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일본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주 고객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인 농부들이 채소를 파는 가게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푸성귀(채소)전'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시장'과 합쳐지면서 신포시장의 시초가 되었다. 원래는 바다 쪽으로 흐르는 냇가라고 해서 '터진개'로 통하다가 새로운 포구라는 의미인 '신포'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5일장이 아닌 정식 상설시장으로 신포시장이 되었다.



배다리 현책방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목재 건물들, 차이나타운, 배다리의 현책방, 여관골목, 양키시장 등 신포시장 일대는 100여 년에 걸친 인천 개항의 역사가 담겨있는 콜라주 같다.

여관 골목

전물들, 차이나타운, 배다리의 현책방, 여관골목, 양키시장 등 신포시장 일대는 100여 년에 걸친 인천 개항의 역사가 담겨있는 콜라주 같다.

푸성귀전 조형물

당시 신포시장에서 푸성귀를 사고파는 모습이다. 푸성귀전은 최초 근대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의 동인천역사 뒤편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 옷가지를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각종 혼수, 침구류를 파는 중앙시장이 되었다. 60년대에는 외국 배에서 밀반입된 수입용품이 거래되는 '양키시장'인 송현 자유시장이 형성되어 수입과자, 초콜릿 등을 찾는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해서 신포시장부터 동인천역을 가로질러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송현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은 그 힘을 잃게 되었고, 그 부지에 재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신포시장만이 인천 근대사를 가로지르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머리 좀 길렀다는 그분들'이 찾던 그 곳

인천은 록 음악의 도시였다. 서울에서 잘 나갔던 밴드들도 인천에서 자주 공연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19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인천 시민들의 상당수는 인천 여러 곳에서 록 공연과 음악감상회 등의 행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시절 인천에서 '머리 좀 길렀다는 그분들'을 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당시 10대의 열정을 공연장에서 보냈던 어떤 이에 의하면 동인천역 근방 신포시장 일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공연장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동인천역 남광장 앞에 있었던 '심지음악감상실'은 인천의 록 뮤지션과 마니아가 많이 모였던 장소로 유명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영상물을 보기 힘들었던 시절, 미국 케이블 음악 채널 MTV에서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를 녹화해 틀어주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천을 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말한다.



신포동 스쿨뮤직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에 소재하는 스쿨뮤직(악기쇼핑몰) 본사 건물은 그 시절 동인천 신포동을 흔들었던 록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정다운 삶의 이야기로 맛나는 재래시장

신포시장은 달강정과 만두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재래시장이다. 특히 '신포달강정'은 속초의 만석달강정과 더불어 전국 2대 달강정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명물이다. 신포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새콤달콤한 냄새가 풍기는데, 펄펄 끓는 기름에 갓 튀겨 매콤한 청양고추와 땅콩가루를 입힌 달강정은 칼칼한 첫맛과 부드러운 속살로 유명하다. 이 달강정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긴 줄을 서야 맛을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60년이 넘는 전통의 '신포제과'는 50년이 넘도록 단골 할아버지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도 즐겨 찾는 곳이라 소문이 나있고, 아버지 대를 이어 떡방을 운영 중인 '타진개 떡방', 러시아 선원들을 위해 러시아어와 러시아 가요를 불러 배운다는 '꼬꼬치킨', 공갈빵, 야채치킨, 핫바(수제 어묵바), 유성분식 등등 손을 꼽으려면 손가락이 모자라다. 이 중에는 이미 매스컴을 탄 달인들도 여럿 된다. 신포시장의 맛집들은 이미 방송 프로그램의 단골이 된 '먹거리'가 되었다. 이곳 맛집들은 정평이 나서 전국으로 영업점을 확장한 곳도 있고, 이곳 신포시장에서만 판매한다는 원칙으로 전국의 손님들을 신포동으로 이끄는 곳도 있다.



신포시장 입구

40년 전통 공갈빵

수제어묵 핫바

신포시장에 가면 달강정, 공갈빵, 달인 핫바 등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맛집들이 많다.



신포달강정

신포우리만두

청실홍실

신포시장에는 유독 전국에서 내놓아라하는 맛집의 본점들이 여럿 있다.



염면집

씨사이드

덕적소갈국수

오랜 시간 신포시장을 지켜온 전통 있는 맛집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신포시장 이모저모

■ 글 : 임지혜(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전문연구원)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인천은 우리나라 개방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항구도시이다. 처음으로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으로부터 침입을 받기도 했고, 서구 열강의 군대가 제멋대로 들어와 조선을 전쟁터로 만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6.25전쟁에서도 인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환경수도 기타큐슈시 탄생 50주년의 의미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1,719개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1,719개의 지방자치단체 수는 1889년의 메이지유신으로 7만여개 달하던 정촌(町村: 우리나라의 읍면)이 15,859의 지방자치단체로 축소된 이후, 1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병하며 축소되어 온 결과이다. 기타큐슈시 역시 5개의 시, 즉 모지(門司), 고히라(小倉), 야하타(八幡), 와카마쓰(若松) 및 도바타(戸畑) 시가 합병하여 1963년 2월 10일 탄생하게 된 시이다. 올해로 정확히 탄생 50주년이 되는 기타큐슈시는 지난달부터 시 탄생 50주년 기념우표 발매, 50주년 기념배 쓰레기 줍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1988년 인천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현재 까지 25년 동안 양시의 공무원 교류는 물론 연구기관 간 학술교류, 중소기업 기술교류, 여성단체 민간교류, 민간 스포츠교류 및 시민단체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이 기타큐슈시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5개 시가 합병하여 탄생한 시라는 것과 공해를 극복하여 “세계 환경수도”가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25년이나 된 자매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아 기타큐슈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타큐슈시가 세계의 환경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장균도 살 수 없는 도카이만(洞海湾)과 많은 시민을 천식환자로 만들었던 오염된 고히라와 야하타의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최악의 환경을 시와 시민이 각고의 노력 끝에 청정바다와 청명한 대기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기타큐슈시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의 환경수도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장균도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 도카이만



▲청정바다로 변한 현재의 도카이만

도카이만의 오염된 바다와 고히라와 야하타의 오염된 대기는 기타큐슈지역이 일본 4대 공업지대로서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기타큐슈지역이 일본의 4대 공업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양최초의 근대식 제철소인 야하타제철소와 이를 배후로 하는 고히라 지역의 공장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모지항 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891년 모지항을 거점으로 하는 큐슈철도가 개통을 하면서 큐슈지역의 물자는 큐슈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모지항으로 집결되었다. 이는 모지항이 간몬(關門)해협을 사이에 두고 혼슈(本州)의 시모네세키(下関)항과 마주하고 있어서 큐슈지역의 물자를 혼슈로 운송하기 위한 최적의 항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1901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식 제철소로 불리는 야하타제철소(신일본제철소의 전신)가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 철강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타큐슈지역에는 석탄의 생산량도 많아 일본의 세계침략을 위한 무기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를 결정하고, 대상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히로시마보다도 고꾸라가 우선 대상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고꾸라에는 도시 배후에 사라쿠라(皿倉)산이 있어 원폭의 위력이 산으로 인하여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핵의 위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구규모도 적당하고 평지인 히로시마가 1순위, 고꾸라는 2순위로 선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의 원폭투하 도시로 히로시마가 기록되게 되었다. 물론 3일 뒤인 8월 9일, 미국은 고꾸라에 원폭을 투하하기 위하여 폭격기를 띄우지만 날씨가 흐려 정확한 투하 장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환하던 중 다음 원폭투하 대상지의 하나였던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었다. 그 후 역사적인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여 고꾸라는 원폭의 피해를 입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만약 일본의 항복이 몇일 더 늦어졌다면, 고꾸라는 원폭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었다면 고꾸라와 야하타의 공업지대는 모두 파괴되어 오염된 바다와 대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염을 극복하여 세계 환경수도가 된 기타큐슈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전 후, 일본은 4대 공업지대로서 동양 최대의 제철소가 있고, 공장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기타큐슈지역에 국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기타큐슈 공업지대를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공업생산량은 급증하고, 이와 더불어 오염 물질의 배출도 급증하면서 기타큐슈지역의 자연환경은 오염되기 시작했으며, 오염된 도카이만, 오염된 고꾸라의 대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타큐슈시청과 시민들은 민관이 공동대처하여 1980년 재단법인 기타큐슈국제기술협력협회(KITA)를 설립하고, 1987년에는 산업환경대책 코스를 KITA에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환경국제협력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는 국제연맹환경계획으로부터 “글로벌 500”을 수상, 1992년에는 리오쑤밋에서 국제연맹 지방자치단체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기타큐슈시는 세계 환경수도로서 거듭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지대로 원폭 투하의 위기를 겪었던 도시이며, 종전 후에는 일본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공업지대로서 일본 내에서의 위상이 높던 기타큐슈시는 최근 그 규모면에서의 위상이 많이 위축되었다. 왜냐하면, 기타큐슈시는 50년 전에는 큐슈지역 최대 인구규모의 도시였으나, 최근에는 1975년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의 개통으로 하카타(博多)역이 신칸센의 기점이 되며, 모지항의 역할이 하카타역으로 이전되고, 야하타제철소는 개설 100년만에 제철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등 도시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50년 전 당시 인구 104만명이었던 기타큐슈시는 1980년 10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97만명에 불과한 도시가 되었다. 기타큐슈시는 1963년 4월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지정(政令指定)시로 일본에서 여섯 번째로 승격하지만, 현재는 일본 전체 정령지정시 20개 도시 중 인구규모가 12번째인 도시가 되었다. 같은 큐슈지역의 경쟁도시라 할 수 있는 후쿠오카(福岡)시가 기타큐슈시보다 10년 뒤인 1972년에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지만, 현재는 인구 142만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일본의 여섯 번째의 대도시가 된 것과 비교하면 기타큐슈시의 인구 감소의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큐슈시는 세계의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환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규모가 감소하여 도시의 외형적인 위상은 축소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기타큐슈시를 대표하는 고꾸라성 전경

질 및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보다 더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도시의 외형 및 규모의 축소 현상을, 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25년된 자매도시 기타큐슈의 정책으로부터 인천시가 배울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1,719개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매우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1,719개의 지방자치단체 수는 1889년의 메이지유신으로 7만여개 달하던 정촌(町村: 우리나라의 읍면)이 15,859의 지방자치단체로 축소된 이후, 1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병하며 축소되어 온 결과이다.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2 인천문화지표조사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연구소장

1. 연구개요

○ 문화지표조사는 문화예술통계의 한 분야로 문화 환경과 문화 활동 현황, 시민들의 문화 향유실태와 문화수요를 조사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측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새로운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지표의 조사 연구는 물론 지속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인문사회 영역과 같은 기초적 지역 현황 분석부터 문화자원, 문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을 광범위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로 추진된 과제였다.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는 1) 기존 문화지표조사를 수정 보완한 〈2012 인천문화지표(문화환경지표) 조사〉, 2)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 주거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한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3) 인천 예술인 활동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2012 인천문화예술인실태조사〉, 4) 공적 영역의 문화예술 기관과 각종 기반 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인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 등 네 가지 과업으로 이뤄져 있다.

2. 인천광역시 인문사회환경

● 인문사회환경은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 교육환경, 행정환경, 경제환경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환경의 경우는 편리성·쾌적성·안전성을, 교육환경의 경우는 충분성을, 행정환경의 경우는 충분성·합리성을, 경제환경의 경우 안정성·활동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인천시의 인문사회환경 중 생활환경의 편리성 면에서 볼 때 인천의 경쟁력은 타 광역시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인구는 2,801,274명으로 2004년과 2008년에 비해 증가세에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면적대비 도로연장(2.41Km/Km2), 광역시 평균 2.91Km/Km2)이나 자동차 도로연장(2.67m/대, 광역시 평균 3.04m/대) 모두 광역시 평균 이하임. 특히 자동차 도로연장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도로면적의 확장속도보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세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수도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 생활환경의 쾌적성에서 녹지비율은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인 51.1%(전국 평균 69.5%)로 조사되었다. 경제환경 측면에서 인천은 인구증가율이 1.51%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 비율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취업률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인천 지역의 중간인구지수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영향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의 경제활동인구가 많지만, 동시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고 실업률도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경제적 토대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천시의 문화자원 영역을 살펴보면 인천의 등록공연장은 29개, 전시시설은 27개, 공공도서관은 26개로 2008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시시설과 공공도서관이 두텁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화) 시설 1개소 당 인구수는 공연장 95,114명, 공공도서관 118,93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인구 대비 시설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문화예산의 비율은 1.9%로 광역시 평균인 2.6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지원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지원건수와 총액, 건당 평균 지원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문화예술 관련 학과와 교수 수에서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2012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 문화수요 영역은 인천시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 및 인천 문화 현실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는 인천시민 총 564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문화수요 영역은 여가활동,

문화예술 행사참여, 문화예술 시설이용, 지역 축제,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문화의식 등 총 8개 관심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2008년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항목과 비교하여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등의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영역에 포함되어있던 지역 축제를 따로 분리하여 인천 지역축제 참여 경험 및 참여 축제 만족도 등을 자세히 설문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 2012년 인천 시민들의 여가시간은 2004년, 2008년 조사에 비해 일정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TV 시청과 낮잠/휴식, 운동이 평일과 주말 모두 높게 나타났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전제했을 때 희망 여가활동은 관광/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인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이었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주요 조사결과에 올라가지 않던 박물관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3위로 조사된 것은 2008년 이후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 박물관을 비롯한 지역의 박물관이 다수 개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시민들이 주로 관람한 문화행사로는 지역축제가 꼽혔고, 대중문화공연과 연극 등의 순이었다. 문화행사 관람을 위해 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이 가장 높고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한 정보는 주로 'TV, 라디오'와 '주변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람을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대중문화공연', '연극', '지역축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활동 지역에 관한 조사에서 인천 시민들의 31%는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는데 그 이유는 대학로나 인사동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특정한 장소(거리)'가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역축제 참여율은 53.7%로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4%로 전국 평균인 9.2%보다 높고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인천과 전국 조사 모두 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은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문화예술교육 경험 분야는 '글쓰기 및 독서'와 '역사문화'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으며, 향후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로는 '연주', '미술', '가창', '역사문화'가 높은 분포를 보임

○ 그런데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과 관련한 질문에는 95.9%가 '경험이 없다'고 답해 시민문화예술활동은 활발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호회 참여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동호회 활동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1.3%로 조사되었다.

4. 문화공공성 지표개발

문화공공성지표는 문화예술기관과 시설운영에서의 효과성과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문화공공성이란 문화의 공공영역 확장 및 공공의 기능 강화와 문화향유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문화공공성의 대표적 지표로 '조직운영 개방성과 안정성' '문화 향유 평등성'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다양성' '시설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지표조사는 문화예술통계의 한 분야로 문화 환경과 문화 활동 현황, 시민들의 문화 향수실태와 문화수요를 조사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측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새로운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지표의 조사 연구는 물론 지속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3년 2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로 살펴본 인천시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로 살펴본 인천시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전 승 용 전문연구원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는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 주거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였다. 20세 이상의 인천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총 9개 관심영역(여가활동, 문화예술 행사참여, 지역축제,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주거만족도, 문화의식)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중 몇 가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천시민의 지난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19시간, 주말 평균 6.50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주말)



인천시민이 평소에 주로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지역축제'(19.3%), '대중문화 공연'(11.2%), '연극'(10.8%), '역사문화 유적'(9.0%), '미술 전시회'(5.7%)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지만, 평소에 문화예술행사를 '전혀 관람하지 않음'이라는 응답률이 33.7%로 가장 높았다.

<그림 2> 평소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



인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26.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6.1%)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인천지역 문화시설



문화예술 창작·발표 경험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경험이 있다'(4.1%)라는 응답률이 매우 낮았으며, 경험분야는 '사진, 영상'(26.1%), '문학'(17.4%), '무용'(13.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지난 1년간 창작, 발표 경험 매체 및 경험분야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평균 3.46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도로소통 및 주차시설'(평균 2.91점)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인천의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천의 특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는 '인천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이다'(평균 3.49점)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인천의 특성



〈2012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는 인천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의식, 주거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였다. 20세 이상의 인천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총 9개 관심영역(여가활동, 문화예술 행사참여, 지역축제,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예술교육, 창작·발표 활동 및 동호회 활동, 주거만족도, 문화의식)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